

어촌체험마을 전문가 컨설팅 사업의 현황과 전망



송 영 택
한국어촌어항협회 어촌문화관광센터
마케팅팀장

어촌체험마을 컨설팅 지원사업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조성된

어촌체험마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도움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전문가를 선발,

체험마을과 1대1 매칭시켜

운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한다.

I. 서론

어촌관광이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수산업과 어촌의 활기를 되찾기 위한 대안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음 몇 가지 이유에 기인한다.

매립·간척, 해양오염, 어족자원 남획으로 인한 어장 축소 및 수산자원의 감소 등에 따라 수산업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가소득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어가소득의 격차가 심화되어 1990년 89% 수준에서 1995년 82%, 2005년 72%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어촌의 어업생산성 저하 및 열악한 정주환경으로 인구도 급감하고 있다. 어가 인구가 1990년 47만명에서 1995년 35만명, 2005년 22만명으로 떨어지는 등 1990년 대비 53%나 감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수산업을 단순 생산의 개념에서 물과 관련된 모든 산업 즉, 수계산업(水界産業)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와 함께 WTO-DDA, 한미FTA체결 등 국제 수



산업 질서의 재편도 어촌관광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또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시장개방 및 보조금 철폐에 따른 새로운 어촌지원 방안 강구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즉 생산위주의 직접지원에서 자원관리·어촌관광 등 간접지원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국민들의 관광 패턴의 수용도 중요한 요인이다. 소득증가와 함께 주 5일 근무제의 정착 등으로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다양한 관광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먹거리 위주 관광에서 교육·문화·체험 지향적 여가활동으로, 단체 대중관광에서 가족단위 또는 소수 목적형 여행으로, 경유형 관광에서 체험·체류형 관광으로 관광 유형 변화가 눈에 띄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시책 방향의 발굴도 어촌관광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 중 하나이다. 정부에서도 어촌을 과거 단순 생산기지에서 생산·주거·관광이 어우러진 종합공간으로의 활용가능성에 주목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도시민이 어촌으로 이주를 유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파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바다에 대한 국민적 이해증진이 필요한 시점이 되기도 하였다. 최근 개최가 결정된 2012년 여수엑스포 등을 계기로 21세기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 기회 마련을 위해서도 어촌관광이 주목받는 이유다.

이러한 어촌관광 활성화 정책중의 하나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다.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어업의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과 도시인에게 어촌과의 교류확대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여가공간을 제공하지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하여 오는 2013년까지 전국 어촌에 총 708억원을 투입, 112개의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개소당 5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형태로 지원조건은 국고보조 50%, 지방비 45%, 마을 자부담 5%로 나뉜다. 2006년 말 현재 총 76개소가 지원되었다. 2007년 말 현재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마을도 나타나고 있으나 많은 마을에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차 산업인 수산업에 매달리던 어업인들이 바로 서비스업인 관광업을 유지 운영하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어촌체험마을 운영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홍보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제작 지원을 비롯, 체험마을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장 채용지원, 마을간 경쟁을 유도, 운영 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우수 어촌체험마을 선정 포상 제도 등이 있으며, 특히 어촌체험마을 전문가 컨설팅 사업이 있다.

□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1년~2013년
- 총사업비 : 708억원
- 사업규모 : 112개소 ('06년까지 76개소 지원)
- 사업종류 : 관광안내소, 진입로, 주차장, 샤워장, 화장실 등 관광기초기반시설 및 소프트웨어사업(컨설팅, 실시설계비, 주민교육 훈련, 팸플릿 제작 등)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45%, 자담 5% (개소당 5억원)

II. 본론

어촌체험마을 컨설팅 지원사업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조성된 어촌체험마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 능력을 높이는 취지로 전문가

를 선발, 체험마을과 1대1일 매칭시켜 운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취지다.

이 사업은 2005년 말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였고, 2006년에는 10개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가 현장 방문식 컨설팅이 진행되었으며, 2007년에는 1대1일 매칭 컨설팅이 시행되고 있다.

〈컨설팅 대상 마을 및 전문가〉

연번	전문가	마을명	전문분야	소속 및 직책
1	김창수	인천 큰무리	체험관광자원 및 상품개발, 프로그램 및 이벤트 개발	경기대학교 관광대학 교수
2	김경배	화성 공평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 공간디자인, 상품디자인	DesignCON 대표
3	강국희	안산 선감	행사 기획·연출, 진행, 홍보 대행	월드라인 대표
4	김영민	군산 장자도	지역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홍보 및 마케팅	(주)서버호텔 사장
5	송화섭	고창 만돌	해양민속 자원 관광 자원화 추진	전주대 문화관광학부 교수
6	정준호	보성 선소	어촌지도(수산행정 박사)	(사)한국수산생물자원연구협회 총무이사
7	김영남	순천 외운	어촌지도 및 교육	(사)한국수산생물자원연구협회 홍보이사
8	이봉구	고성 동화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 마케팅, 민박운영	동시대 관광경영학과 부교수
9	양위주	남해 문항	해양관광, 관광정보시스템, 관광자원개발 및 계획	부경대 관광경영학 전공 교수
10	설훈구	남해 지족	호텔 리조트 및 테마파크 기획, 개발, 관광경영 및 전략 수립	부경대 관광경영학 전공 교수
11	김영규	영덕 경정2리	관광개발, 주민교육, 행정/홍보	(사)법영덕군민회 부회장
12	이광표	삼척 장호	어촌관광개발, 어촌관광상품 운영, 축제 진행	와바다다 대표
13	박영철	동해 대진	수산자원 연구, 홍보	강릉대학교 초빙교수

□ 컨설팅 전문가 구성의 특징

올해 컨설팅 전문가의 구성을 살펴보면 관광전문가(교수, 업계대표 등), 수산행정가(수산퇴직 공무원), 수산연구가, 지역전문가(지역 공무원 출신), 홍보 및 경관 디자인 전문가 등 지역 및 마을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배경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관광사업이라고는 하나 크게 보았을 때 수산업의 개념확대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관광전문가만 참여할 경우, 수산 및 어촌의 특성을 감안한 컨설팅이 진행되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다양한 스펙트럼의 전문가를 포진시켰다는 것은 본 사업의 진행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또 사전에서 마을에서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하여 마을에서 필요한 전문가를 섭외, 마을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5개마을을 진행). 이와 함께 전문가의 주 생활지와 어촌체험마을간의 거리를 감안, 수시로 마을을 방문하도록 지역 전문가를 배치하였다는 것도 특징이다.

□ 컨설팅 전문가 주요 활동

대부분의 마을은 홍보 및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수익모델 개발, 마을 자원 발굴, 정보화 교육 등 어촌체험마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요구하고 있었다. 특히 이중에서 홍보 및 마케팅, 마을 자원 개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컨설팅 전문가들도 이에 맞추어 전문가 활동을 펼쳤다.

지난 6월부터 시행한 그동안의 활동을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월 평균 2회~3회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마을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이 먼저 선행되었다. 전문가들이 파악한 체험마을 운영상 문제점들로는 주민 참여도 부족 및 내부 갈등 발생 등 인적 관리 부분과 마을홍보 부족, 상품화나 수익성 부족 등이 대표적으로 꼽혔다. 다음은 이에 맞추어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설문조사, 관광객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활동계획 수립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컨설팅 전문가들은 마을 주민들과 협의로 4개월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아이টে임을 발굴했고 아이টে임 중 상품화가 가능한 마을 별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안하였으며, 프로그램별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여 상품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홍보 및 마케팅도 중점을 두었다. 홍보 및 마케팅은 마을 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컨설팅 전문가에게 가장 바라는 부분 중에 하나였다.

홈페이지 제작 대상 마을의 경우 콘텐츠 발굴 및 홈페이지 운영 자문을 해 주었으며 삼척 장호, 보성 선소 마을의 경우에는 체험객 유치 및 행사 진행 지원도 하였다. 군산 장자도의 경우 일간지 신문에 마을 소개를

궁평리 캐릭터 제안



궁평리마을에서 아열을 지은 평이와 궁이는 궁평리의 특산물들(우·간 바지락)을 영감받은 인형 캐릭터이다. 다양하고 귀여운 문채, 환근, 생생한 컨셉트를 갖고 있는 궁평리의 특산물, 캐릭터를 통해 표현하여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고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안내하였고 삼척 장호도 방송 유치를 하였다. 마을 BI 및 캐릭터를 제작하여 제공해 준 경우도 있었다. 화성 궁평 마을의 경우, 컨설팅 전문가가 디자인 전문가인 특수성을 살려, ‘궁이와 평이’ 라는 바지락 캐릭터를 만들어 모든 싸인물과 마을 상품에 캐릭터를 사용하도록 해 주었으며 인천 큰무리 마을의 경우에도 BI를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삼척 장호의 경우 마을 홍보물(파워포인트) 제작을 지원해 주기도 하였다.

마을 주민들에 취약한 행정적 지원을 한 경우도 있었다. 마을 주민들과 회의를 통해 민원사항 및 요청 사항을 파악한 후 시·군 관계자와 협의 및 전달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동해 대진마을의 경우 마을인근의 서울대학교 동해 해양연구소와 자매결연 체결을 유도하기도 하였으며 고창 만들마을의 경우에는 고창군 문화원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고성 동화마을의 경우에는 어촌체험에 관한 법규 및 관련 규정 검토를 대항해 주기도 하였으며 영덕 경정2리의 경우에는 어촌살림집(어촌민박) 지원 예산을 군으로부터 추가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고 있다.

인적 역량 강화 즉, 주민교육을 통한 인식전환에도 큰 역할을 해 내었다. 주민교육은 전 마을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었다. 마을 회의에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어촌체험마을 운영이 마을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자리를 모든 마을이 가졌다.

이와 함께 남해 지족, 문항마을의 경우에는 서비스 전문가 초청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산전문가가 활동한 동해 대진과 보성 선소, 순천 와온마을의 경우에는 수산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사무장이나 어촌계장, 운영 위원에 대한 체험마을 운영 교육도 수시로 진행되어 장

비관리, 체험객 대상 해설방법 등도 교육되었다. 이와함께 수시로 유선 컨설팅이 실시되었으며 마을 주민간 갈등도 중재하는 역할도 담당한 경우가 있었다.

□ 마을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당초 어촌체험마을 기본설계상 운영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갯벌체험, 바다낚시, 개막이 체험 등 어업체험으로 단순 잡기위주로 진행, 재방문율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어촌체험마을 마다의 특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이에 프로그램의 고급화와 다양화를 이루고 계절성을 극복하고자 타 마을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개발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4계절 특화프로그램은 크게 주력 상품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보조형 프로그램과 전문가가 찾아낸 아이টে으로 개발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아이টে별로 구분해 보면 어촌체험형, 레저형, 생태학습형, 문화·음식 개발형, 그리고 기타 방식을 나타낼 수 있다.

○ 어촌체험형

어촌체험형으로 제시된 프로그램으로는 보성 선소 마을의 야간 햇불 갯벌체험, 순천 와온마을 뽕썰매 체험, 고성 동화마을의 개막이와 선상낚시, 인천 큰무리 마을의 무인도 체험, 군산 장자도 마을의 낚시어선 해상 유람, 고창 만들마을의 패각캔들 만들기, 영덕 경정2리마을의 대게 프로그램과 오징어 잡기 및 건조 체험, 동해 대진마을의 문어 낚시 및 요리 등이었다.

어촌체험형 프로그램은 마을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프로그램화를 이루지 못한 아이টে들로 마을 주민들간의 협의만 거친다면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 레저형

레저형으로는 인천 큰무리마을의 실미도 서바이벌,

안산 선감마을의 승마체험장 조성, 삼척 장호의 투명가누 생태체험 등으로 신선한 아이디어이다. 그러나 마을의 자체 투자나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 필요한 사항으로 만약 실시될 경우에는 화제성을 창출, 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보여진다.

○ 생태학습형

남해 문항마을의 갯벌체험 및 바다갈라짐 현상과 연계한 해양생태교육, 남해 지족마을의 지역문화 연계 학습 및 마을 둘러보기, 동해 대진마을의 해조류 채집 및 표본 만들기 등이다.

생태학습형은 마을 주민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매뉴얼화가 필요하며 아니면 환경단체 및 전문가들과 협약에 의해 공동 진행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

○ 문화·음식 개발형

어촌체험관광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제안으로 군산 장자도마을의 야생화 트래킹, 고창 만돌마을의 죽도 섬꽃잔치, 죽도 범음콘서트, 만돌 굴김국 개발, 삼척 장호마을 오적어 목계 체험(오징어 먹물로 글씨쓰기)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은 마을 주민들이 발견해 내기는 어려우며 전문가가 참여해야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였다. 어촌마을에는 독특한 문화자원(성황당, 장례법, 역사적 유래, 전설 등)이 많고 수산음식도 다양하기 때문에 개발될 경우 어촌체험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었다.

기타 제안으로 경기 화성 궁평마을 궁평항 순환 트레일 조성, 디자인 싸인물을 통일해 동선을 유도시킨다는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다. 이 트레일 코스 개발 아이디어는 다른 마을에서 응용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III. 결론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어촌체험마을 컨설팅 사업을

통해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가장 큰 효과로는 마을 주민들, 어업인들의 인식 변화가 눈에 띈다는 것이다. 어촌체험마을 운영에 있어 추진세력(어촌계장, 위원장 등)은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에 참가하여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어촌계원 전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컨설팅 전문가가 마을을 찾아가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육이 진행되어 주민전체의 인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아이템 및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개발도 이뤄내었다. 어촌에는 상품성 높은 아이템들이 존재하나 어업인 스스로 발견해 내기는 어려움이 많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마을 현황을 밀착 파악했고 아이템을 발굴해 내었다. 여기에 이를 프로그램화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마을 문제점 파악 및 갈등 관리도 용이하였다. 전문가들은 체험마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갈등 조정을 시도하였다.

관할 행정기관과의 협조도 원활하게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무엇보다 마을 홍보 강화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사업의 한계도 있었다. 자문이나 제안으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으나 이를 마을에서 수용할 자세나 여력이 부족할 경우, 실천으로 옮기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컨설팅 전문가의 업무 영역 한계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마을과의 이견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컨설팅 전문가 활동의 질적 차이도 발생하였다. 컨설팅 전문가 마다 역량과 참여 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마을 컨설팅 활동의 질도 차이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향후 효과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전문가, 마을, 지방자치단체, 한국어촌어항협회, 해양수산부 등 관계자들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것도 지적될 수 있었다. 